

中央藥大 同門會報

가을

2007년 제22호



CAU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2007년 제22호 가을



시론

- 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영광을 다시 찾자!
|유정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
- 4. 약학과 산학협력센터의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의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시I

- 5. 중앙대 약대동문회 50주년에 즈음하여...
|홍홍만| 1회 동기회장 / |김순일| 1회 동문

동문회 소식

- 6.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행사경과

PROFILE

- 8. 제16대 회장단/이사회 명단

정기총회

- 10. 2007년도 정기총회 및 50주년 기념식

체육대회

- 14. 제37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별난동문이야기

- 16. 人生유전- 약사에서 의사를 거쳐 공군장성이 되기까지
|민태형| 20회 동문

문학작품

- 18. 약혼녀
|정영기| 10회 동문

20. 동기회소식

시II

- 26. 왕유의 山居秋暝(산거추명) 산 속의 가을 저녁녘
|허인회(4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27.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서

28. 회원동정

30. 발전기금 조성내역

34.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35. 편집후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영광을 다시 찾자 !!

중앙대학교 선·후배동문 여러분 !!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중앙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읊조릴때는 왠지 가슴이 뭉클함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오되어가는 학교로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세기전 중앙대학교 위상은 사립대학 뿐 아니라 전국 약학대학 중에서도 명성을 떨치는 학교였으며 그 어느 누구라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 왔습니다. 우수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또한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기탁, 교수님을 위한 연구비 지원, 학교시설의 약학기 지원 등 후배 사랑으로 이어져온 중앙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세기 흐르는 동안 고 임영신 설립자의 학교 사랑의 이념은 점점 식어져가고 있으며 학교의 위상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6700여 동문여러분 !

약학대학 가운데 서도 가장 많은 동문을 배출한 학교로서의 위상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남산이 영을 넘어 바라보이고.... 뒤로는 관악산이 높이 솟았네.....”

중앙의 교가에서 처럼 많은 대학교중 서울시내에 위치한 약학대학을 갖고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가 왜 이렇게 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처음 눈에 띄는 것이 파이퍼홀이었으며 파이퍼홀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 우수한 교육시설이었습니

다. 그곳에서 강의와 실험을 받던 우리는 항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낡을대로 낡은 파이퍼홀을 신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5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단의 부실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뤄온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때입니다.

약학대학의 영광과 학교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금 모교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10% 만 더 모교사랑과 애정을 갖고 참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선·후배 동문여러분 !!

마음가짐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시다.

그리하면 가까운 훗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우수한 약학대학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08년부터는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됩니다.

이 어렵게 얻은 제도를 우리 대학에서는 절호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하겠습니다. 그것은 선·후배동문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재학생은 물론 앞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후배들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명석한 인재들이 모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의 연구와 교육시설을 갖춘 건물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동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줄 시기라 여겨집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영광을 다시 찾는 그날까지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회 장 유 정 사

약학과 산학협력센터의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동문회 창립 50주년과 새 집행부께 축하드립니다 ”



지난 2월 약대를 위해 일하게 된지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6개월이 지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수확의 계절인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동문께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더 부지런히 찾아뵙지 못했음을 해량해 주십시오. 유정사회장님과 정찬헌 사무총장님 이하 모든 임원을 포함한 동문 모든 분께 동문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문배출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권혁구 회장님과 임원진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동문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는 창학 100주년이 되는 2018년을 향해 2002년부터 시행된 CAU2018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세계유수의 대학교대열에 들어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문개발계획의 일환으로 5300평내외규모의 약학대학과 600여명의 산학협력센터의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이는 약대가 국내외에서 기반시설의 극대화를 이루어 교육과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대는 교내에서 CAU선도연구단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바이오신약개발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학생, 교수, 대학 간의 융합된 삼합(三合)의 노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56년에 지은 약대파이퍼홀은 이제 50년이 되었고, 이제 역사 속에 파묻고 동문과 함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009년에 시행되는 6년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입문시험, 교과과정, 실무실습, 교육환경제도영역)를 발족시켰고 임상지도약사배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1회 선배님들의 졸업 50주년행사로 모교방문행사도 진행되어 발전된 연구실도 직접 보셨고, 이어 기념석탑제막식이 1층 화단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반세기를 마감하고 학교를 재도약하라는 의미의 응비(雄飛)라는 글귀로 선배님의 정성어린 기념비가 세상에 나래를 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교육과 연구의 새터 건립을 통한 기반조성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맞이하도록 세계로 미래로 마음을 열고 응집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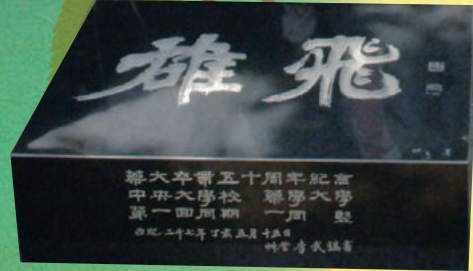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학 장 손 의 동

약학대학 제1회 졸업동기생들이 졸업50주년을 맞아 약대의 무궁한 발전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다.

웅비 : (기운차게 난다는 뜻으로) 빼어난 슬기와 기개로 기운차고 용기있게 활동함을 이르는 말

초당(草堂) 이무호(李武鎬) 선생은 양영대군의 사당에 추모단(追募壇), KBS TV의 드라마 중에서 대조영(大祚榮), 무인시대(武人時代) 등의 글을 쓰신 명필가이시다.



軒詩

중앙대 약대 동문회 50주년에 즈음하여 ...

1957년 3월
 中央藥大에서 처음 輩出된 20代 藥師들이
 서로의 幸運을 빌며
 동지를 떠나 멀리멀리 飛翔하였네

그로부터
 一古一藥의 50개 星霜
 (오늘이 50주년이면 아아 어느덧 半世紀로구나)

화이퍼 홀의 눈부신 年輪과 더불어
 綿綿이 꽃피워온 <中央藥大>의 名聲
 6000 餘 후배들이여
 다시금 아름답게 꽃피워 보세나

中央藥大의 보배로운 秀才들이여
 21世紀가 時時刻刻으로 움직이네

「직관 + 상상력 = 창조적 天才」라 하였던가
 “사막위의 뉴욕”을 세운 “중동의 기적”을 보세나

和而不同의 마음으로
 100年の 歷史를 생각하세
 世界속의 中央藥大를 생각하세

고 고
 呱呱마다 母校에서 듣고 보던 그 追憶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兄弟들로 자라났네

先輩 · 後輩
 우리 다함께 어깨동무 하자구나

黃昏에 祝杯를 들며
 다시, 다시 불러보고 싶은 이름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빛나는 名門으로
 오래오래 世世토록 永遠하리라

2007년 5월 18일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1回同門一同
 自作詩 낭송 夕村 金 舜 逸



고문단 회의

△일 시 : 2007년 5월 2일 오후 6시

△장 소 : 식도원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기홍, 송문영, 오세형,
최종묵, 임완호, 유영후 고문 참석



공직약사회 및 분회임원 간담회

△일 시 : 2007년 6월 9일 오후 7시

△장 소 : 대한모발과학연구소 4층

△참석자 : 이경옥 회장, 정덕화, 허근희, 강옥희, 이영희,
유화송, 연정희, 전금용, 김영희

△허근희(8회)강사- 약국에서 “모발”을 통한 건강관리



사무총장단 회의

△일 시 : 2007년 6월 14일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박호일 감사,
김광일 부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최면용 사무부총장



제16대 회장단회의

△일 시 : 2007년 7월 21일 오후 6시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1. 2007년도 예산(안)의 건
2. 사업계획(안)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유정사 회장, 김광일, 이대윤, 이영민, 조규동, 황공용, 노덕재, 이호섭, 이효훈, 박동규, 최창엽, 조길도, 윤대봉, 임영식, 김승태, 김용의, 조찬희, 선우영환, 장재인, 주완표, 김기명, 이경옥, 김현태, 박기배, 정찬헌, 유영내, 강희운, 유대식, 최광훈, 이규삼, 김승재, 이내흥, 김정수, 연정희, 안희규, 이상수, 김영희, 고석일, 김경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일 시 : 2007년 8월 20일

△장 소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실

△안 건 : 1. 약학대학 발전기금 결산 보고의 건
2. 약학대학 발전기금 결산후 조성현황 보고의 건
3. 약학대학 발전기금 활성화 방안의 건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유영후, 권혁구 고문, 이민원 교수



초도이사회

△일 시 : 2007년 9월 15일

△장 소 : 프라자호텔 (메이폴홀 4층)

△안 건 : 1.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건
2. 200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Profile

제16대 회장단

10 회	유정사, 김광일, 김정남, 방순환, 변도문, 이대운, 이영민, 정수길, 조규동		
11 회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12 회	이관하, 노덕재, 이호섭, 이효훈, 김 구, 이성우
13 회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최창업	14 회	조길도, 윤대봉, 김종렬, 현수홍
15 회	임영식, 김승태, 김용의, 조찬휘	16 회	최광식, 허사길
17 회	김성지, 양희익,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주완표	18 회	김기명, 조중형, 김애경
19 회	이경옥, 박효식, 윤건섭, 김경오	20 회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헌, 유영내
21 회	김수배, 홍종오, 이세진	22 회	강희윤, 이현희, 차달성, 유대식, 최광훈
23 회	김영식,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하충렬	24 회	이규삼, 김승재, 이범도, 함삼균, 김관식
25 회	최두주, 이내홍, 조석현	26 회	김정수
27 회	최면용, 박영달, 현기원, 오순용, 연정희	28 회	안희규, 이상수, 양덕숙, 김영희, 곽순자
30 회	김광식, 고석일, 김경자		

제16대 이사단

1 회	홍흥만, 김욱동, 김기홍, 김순일, 손동헌, 이광표, 이동화, 장 레, 조덕렬, 홍석부, 박학전
2 회	고두흔, 김종욱, 서화택, 이문규, 이택성, 정덕화, 지선훈
3 회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이병균, 오세형, 최종묵
4 회	천흥기,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홍수, 문창하, 신영식, 박노일, 박승배, 정재현, 안국영, 우정희, 이광호, 이연수, 이창우,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임호식
5 회	김상오, 김명섭, 김영배, 김채윤, 박명자,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정훈교, 임영규, 조동준, 조취제
6 회	임성기, 김경희, 김종구, 김동열, 신정숙, 유상열, 박정배, 류관열, 조정순, 전희태, 진교성, 추의호, 안병한, 안인혁, 임완호, 임철부, 최길영, 정병중
7 회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김정부, 김영일,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조원, 최춘자, 한철희
8 회	조의환, 임상묵, 김돈기, 곽유환,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유영수, 한석원, 김연희, 김홍자, 문옥자, 허근희, 배영애, 장영자, 김신자
9 회	권혁구, 이규진, 김익섭, 강군모, 권태섭, 김정관, 김정보, 김정완, 김창용, 상병준, 신순철, 양무웅, 이근배, 이광일, 이영숙, 이승규, 조정기, 최인자, 허흥주, 황태선, 박성학, 손승언, 김영빈, 김영부, 김 철, 김학원, 윤광노, 박장우, 최영근, 허 룡, 임승진, 문영동, 이수자, 김광자, 김봉수, 전창선, 유병웅, 김형규, 김홍래, 노신희, 이찬호, 이종원

제16대 회장단 / 이사회 명단

10 회	유정사, 김광일, 김정남, 방순환, 변도문, 이대윤, 이영민, 정수길, 이택승, 조규동, 경동춘, 김삼균, 김영호, 김명민, 김창수, 박광일, 박호일, 서정목, 심수일, 이광수, 이동철, 이명창, 이양원, 이원일, 이장열, 이종석, 이흥수, 이흥만, 우영창, 장영조, 전광석, 전수원, 정승수, 정영기, 정헌행, 조정자, 주정덕, 최창남, 홍성민
11 회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김명우,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종, 김철홍, 남복석, 민대식, 박상희, 박신규, 박찬희, 박희경, 서세양, 박승보, 서영복, 이석태, 신명승, 윤대장, 이철규, 최옥출, 허정범, 하만웅
12 회	심재웅,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우준하, 이효훈, 이성우, 조택상, 최병호, 이관하, 이정구
13 회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최창엽, 안병식, 김종성, 김병현, 박현숙, 신선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오영지, 엄계숙, 임유재, 송옥순, 황근성, 이우식
14 회	조길도, 김종렬, 윤대봉, 김명웅,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정도연, 엄태항, 조양연, 지성배, 채성기, 홍성철, 정진모, 현수홍, 안해봉, 이희영, 유효성
15 회	임영식, 김승태, 김용의, 조찬휘, 김형수, 박석동, 박원봉, 권영선, 김영만, 김윤빈, 김화선, 김태영, 원장희, 윤종준, 오세일, 이명숙, 고동석, 이인석, 위혜주, 최영덕
16 회	최광식, 허사길,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김광식,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은술, 이은주, 하상권, 정경남, 최창원, 박주영
17 회	양희익, 신상직, 선우영환, 장재인, 주완표, 김기종, 김대희, 김성지, 김성택, 김인형, 김인희, 김재천, 김종환, 김태성, 신창억, 유승화, 이동우, 전상훈
18 회	강응모, 정명진, 김기명, 김상각, 전광우, 조중형, 최수형, 임종진, 이원영, 김승열, 여운숙, 한창일, 박원래, 김애경, 강성원
19 회	이경옥, 김경오, 김미담, 김홍옥, 남상규,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윤건섭, 차영수, 민상임, 이은영, 신성희, 성귀현, 신성익
20 회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현, 유영내, 권오규, 김홍진, 김영섭, 이호선, 이극선, 문주기, 최석중, 오상동, 박영근
21 회	김수배, 홍종오, 김두수, 이규섭, 전명선, 김동학, 김중호, 백운경, 박전희, 한성희, 이세진, 권오규
22 회	강희윤, 최광훈, 고부환, 강명희, 김홍진, 박상용, 오황영, 이명옥, 이준상, 김철수, 손의동, 이현희, 김형근, 유대식, 이명수, 차달성, 전철호
23 회	김영식,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하총렬, 강한구, 곽창림, 방용남, 양재업, 이도익, 제갈희, 정세희, 조근태, 권석형, 강호영, 김진섭, 이승하, 박찬남, 조병훈, 임상규, 김항만
24 회	김승재,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김관식, 김정무, 오세흥, 김정일, 정종근, 조종래, 최재윤, 함한성, 하영길, 윤규형, 황규진, 이광섭, 임형균, 김기환, 박관수, 오진영
25 회	최두주, 이내흥, 고성권, 김광호, 김영식, 김희섭, 이재희, 이민원, 조석현, 전경숙
26 회	조병일, 김정수(A), 김정수(B), 심상수, 진희억, 최민규, 황완균, 조필련, 반수호, 안재용, 손영상, 이창훈
27 회	박영달, 현기원, 오순용, 최면용, 연정희, 이창오, 김정호, 이무택, 정웅섭, 이선애, 민병희, 한봉길, 오흥설
28 회	안희규, 이상수, 김영희, 양덕숙, 곽순자, 정원태, 이병천, 김희식, 이숙희, 전금용, 조형진
29 회	이 준, 이종민, 하숙량, 서경원, 유성열
30 회	김광식, 고석일, 김성배, 도민숙,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김향숙, 김연하, 김경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50주년 기념식



권혁구 (9회)동문회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에 시청앞에 있는 프라자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 및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혁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문회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문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문 서로 간에 친목과 화합으로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만이 우리 동문회가 활성화 되는 첩경이라고 말했고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문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동문들의 대승적 신뢰와 동참을 바란다” 말했다.

이어 50주년 기념식으로 1회 흥흥만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김순일 동문의 시낭송, 1회 동문들에게 동문회에서 준비한 선물증정했다.

이날 총회는 2006년도 중요업무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과 김영일 감사의 감사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200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건과 제 16대 임원선출에는 유정사(10회) 회장, 정찬헌(20회) 사무총장, 최면용(27회) 사





박범훈 총장



유용태 총동문회장



손의동 약학대학학장



유정사 신임회장

무부총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감사는 8회 박도규, 9회 권태섭, 10회 박호일 동문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여동문 회장은 이경옥(19회) 동문이 연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대학교 박범훈 총장, 유용태 총동창회장, 손의동 약학대학장,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 경기도 약사회 박개배, 서울대 약대동문회 이금기 회장, 덕성여자 대학교 총동문회 고숙희 회장, 영남대 길광섭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서울동문회장 고숙희, 성대약대 장우성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이정자 회장, 숙대개국동문회 허순자 회장, 숙대 서울개국동문회 엄태순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곽순애 회장, 한국여약사회 고미지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문회장 공로패 수상자와 기념촬영



▲내빈과 함께 50주년 기념 케이크커팅



▲15대 권혁구회장 16대 유정사 신임 회장의 이·취임



▲15대 회장단 기념사진



〈총장 공로패〉

- 박영규(5회) 신정재약국

- 신정숙(6회) 금신당약국

〈총동창회장 공로패〉

- 김경오(19회) 영림약국

- 임종철(19회) 한미약품

〈학장 공로패〉

- 김 구(12회) 김구약국

- 장재인(17회) 한독약국

〈동문회장 공로패〉

- 인고길(7회) 광명지부, 화타약국

- 박상희(11회) 성남지부, 유성약국

- 이일형(13회) 중랑지부, 세기약국

- 윤순석(18회) 동대문지부, 평제약국

- 박기배(20회) 고양지부, 행복한약국

- 이극선(20회) 안양지부, 대림약국

- 조병훈(23회) 성남지부, 민중약국

- 최민규(26회) 안산지부, 동인당약국

- 박재길(26회) 구로·금천지부, 정암산약국

- 서경원(29회) 강남지부, 삼성강남약국

- 김광식(30회) 용인지부, 인정약국

- 최동일(32회) 수원지부, 새독일약국

- 우경아(36회) 은평지부, 세종약국

- 김병욱(38회) 도봉·강북지부, 세계로약국



총동문회장상 김경오(19회)



학장공로패 김구(12회), 장재인(17회)



동문회장 공로패 인 고 길(7회)



박기배(20회)



이 극 선(20회)



조 병 훈(23회)



박 재 길(26회)



서 경 원(29회)



김 광 식(30회)



최 동 길(3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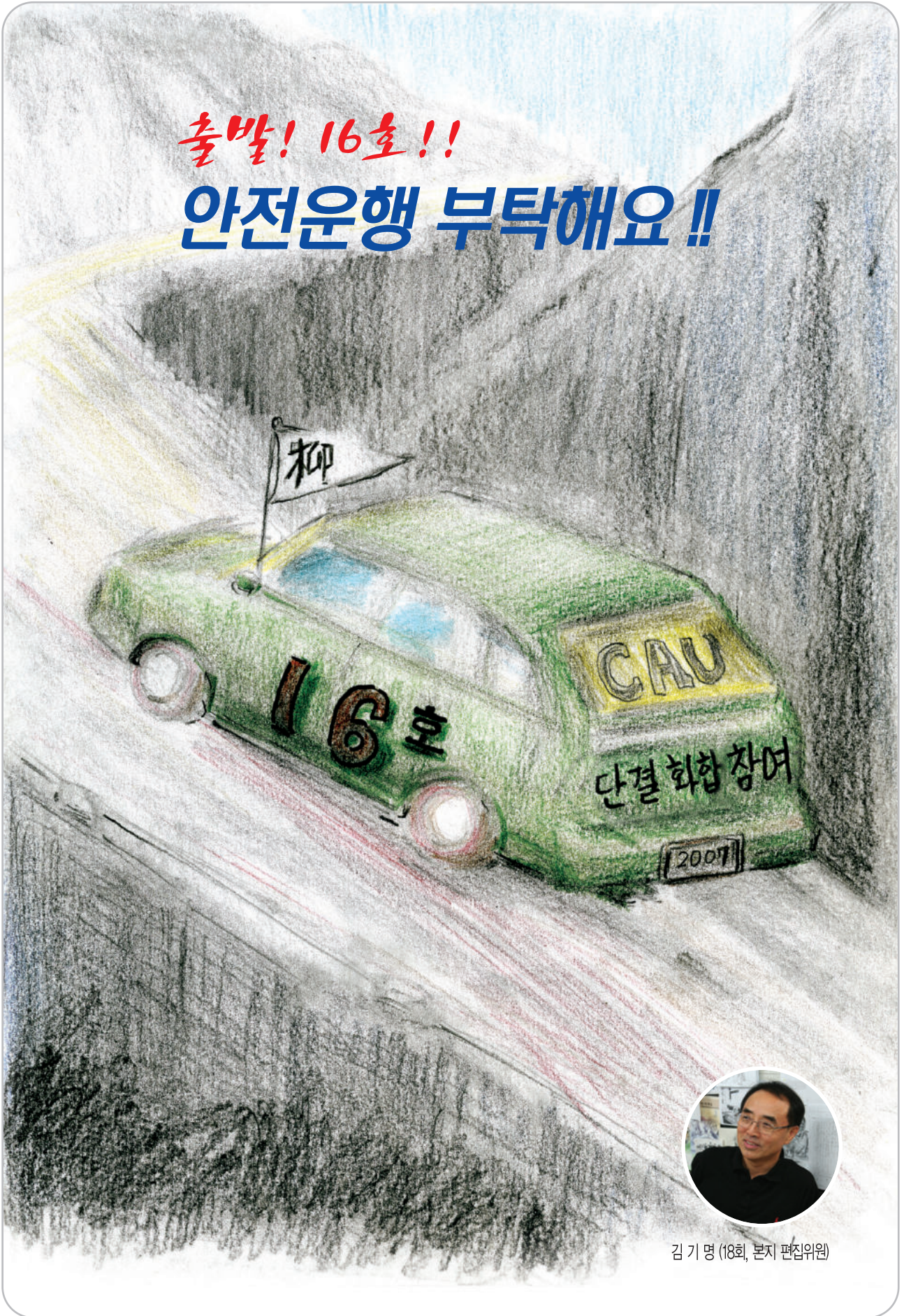


우 경 아(36회)



김 병 욱(38회)

출발! 16호!!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모교와 동문회 발전 다짐’ 제37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골프대회 1등(20회 동기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 37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중앙대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흠커밍데이 순으로 이뤄졌다.

유정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약업현장에서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훌훌 털고 선·후배가 하나가 되어 운동장에서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은 손의동 학장, 김종갑 명예교수, 김일혁 명예교수, 신화우 명예교수, 최영욱, 이민원, 심상수, 황완균, 임채욱, 김하형 교수,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임완호, 권혁구 고문,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 성대동문회 장우

성 회장, 덕성여대동문회 김성순 회장, 숙명여대동문회 엄태순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는 종합우승 1위 안양지부, 준우승은 안산지부, 3위는 수원지부가 차지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다과와 함께 행운권 추첨, 장기자랑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행운권 당첨자에게는 자전거와 상품권이 주어졌다.



체육대회 단체사진



단체 줄넘기



단체 줄다리기

우승팀 명단

축구

1등 안산지부, 2등 안양지부, 3등 강서지부

바둑

1등 서초지부, 2등 수원지부, 3등 안양지부

테니스

1등 인천지부, 2등 시흥지부, 3등 수원지부

골프

1등 안양, 2등 수원, 3등 노원 (지부)

1등 20회, 2등 30회, 3등 10회(동기회)



골프대회 단체사진



단체 훌라우프

별난 동문 이야기



人生유전

- 약사에서 의사를 거쳐 공군장성이 되기까지 -

대학을 떠나온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으니 세월의 흐름속에서 모두들 얼마나 변해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군생활을 핑계로 동문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면을 빌어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1976년 약대를 졸업했던 저는 남자로서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 하는거 공군장교가 좋을 것 같아 입대했던 것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줄은 주위 친구들은 물론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나를 임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어 금년 1월 장군의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줘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숙명이요, 스스로 개척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운명이라고들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재미없는 게 군대 이야기라지만, 군복무라는 숙명으로 시작되어 운명으로 가꿔갔던 제 군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군에 입문했지만 처음 임관했을 때 출발은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임관시 교육우등으로 1등을

하여 국방부 장관상도 수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군번이 빠르다 보니 모든 신고나 교육 때마다 보고를 도맡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음고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기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장기 군의관 보충을 위해 의과대학에 위탁을 보내주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약대를 졸업하고도 약 한 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제게 새로운 길이 열려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시기에 결혼도 했고, 약대시절 연마 했던 공부법(재시험도 많이 보았지만, 당당히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때문에 의대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인턴, 중앙대 부속병원 피부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 피부과 군의관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해 국군수도병원 진료부장, 항공의료원장, 국군광주병원장을 거쳐 공군 군의관으로서는 27년만에 장군으로 진급하는 영예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다행히 인연이 닿아 9년 전 국군광주병원장 시절 김재환 정신과 군의관을 만나 마음수련을 접하면서 인생의 큰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나의 모습은 우주와도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순리와 큰정(大情)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약, 약-한 갈등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서로의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부족과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그 아픔이 더욱 커지고 지속되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진통의 끝에 더욱 발전된 미래가 찾아옴을 알고 있기에 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안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도 약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 왔기에 동문 여러분께 좋은 경험을 나누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드넓은 세상에서 전공과 다른 분야에 진출도 해보고, 한 번 뿐인 인생을 굴하지 않고 도전했던 한 군인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임영신 박사님의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을 되새겨 보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동문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두 멋진 인생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민 태 형(20회 동문)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선택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되 결과에는 수용할 줄 아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군에서의 첫 출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작됐으나, 그것은 오히려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약이 됐습니다. 덕분에 군에서 많은 혜택도 받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 된 이후에는 건강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허약체질이었던 저는 30대 중반이 되면서 체중도 늘고 혈압도 높아지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줄넘기 5분도 못하고 지쳐버릴 정도로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독한 마음을 먹고 식사량도 평소의 반으로 줄이고 매일 30분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며 매달 1kg정도 줄여가며 1년 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30분 정도의 조깅과 한해 서너차례의 마라톤 대회를 7, 8년간 꾸준히 참가하는 등 운동을 생활화 해서 지난 3월 18일에는 동아마라톤을 참가해 이른 봄바람을 즐기고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너무도 힘들었지만 건강이 향상되면서 매사에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적인 건강과 안정감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운이 따라 주었는지 진급도 잘되었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찾아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이를 찾기 위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설계할 젊은 시기에 누구나 해야 할 고민이었지만 그 답은 어렵고 멀게만 보

창작수필 (2006 추계 등단상 당선작)

약혼녀



나는 몇 해전부터 여름휴가를 고향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가는 길을 잠시 돌아 '우포늪' 근처 한적한 강마을의 작은 가게주인 진씨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서다.

진씨가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약 50년 전 그의 나이 이십 중반의 청년시절이었다. 미리 정해 찾아 온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유랑길에 던져진 발길은 아니었다. 진씨는 반공포로 출신이다. 6·25의 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반공포로를 일시에 대거 석방하여, 이들이 남한 각지로 자유로운 새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을 때, 진씨를 비롯한 약 스무명의 반공포로가 처음으로 기착한 곳이 이 강촌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동네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지냈는데, 이 낮은 손님들에게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동네 꼬마들만은 예외여서 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한 동안은 면사무소에 가는 것 외에는 멀리 나들이는 하지 않고 동네에서만 지내다 보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을 친구처럼 기다리고 반겨 주었다. 우리는 이들이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꼬마들을 목마 태우고는 달리기도 하고 말타기를 하면서 시름을 잊는 듯 했다.

차차 익숙해지면서 동네일을 거들기도 하고, 민가에서 숙식도 함께 했는데, 세월이 안정되면서 한 분 두 분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했다. 국군에 입대하여 휴가차 다시 들린 분도 있었고, 나중에 인도로 간 분은 몇 차례 편지도 보내 왔었다.

진씨는 동네 과수원 일을 돌보며 지냈다. 당시로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그도 한 때는 떠나고자 했으나 동네에서 극구 말렸다. 그의 어진 인품과 성실성이 그의 발길을 잡은 셈이었다. 동네 일에 주저 없이 나서고, 겸손하면서도 용의주도한 일처리는 어른들의 칭찬을 늘 달고 다녔다. 아이들에겐 '포로 아저씨' 또는 '이복내기' 였다가,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처럼 많은 것을 아는 아저씨로 보였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진씨는 우리들에게 존경스런 어른이자 '그 이상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그 시절 강가의 아이들이란 여름이면 겁없이 물에 뛰어들어 온 종일을 물에 살다시피 했다. 뜨거운 한 낮에는 길에 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 소리만 간혹 들릴 뿐, 다리 아래 물 놀이하는 아이들이야 풀어 놓 강아지처럼 침범 거리다 제풀에 돌아가기 마련이어서,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이도 없었다.

물이 갑자기 깊어져 물가로 나오려고 팔을 휘젓자 발이 더 깊은 데로 미끄러지며, 물살이 센 강 가운데로 되려 떨어져 들어갔다. 이를 보고 뛰어든 두 아이까지 겨우 익힌 개헤엄으로는 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자, 진씨 아저씨가 어디선가 달려와 모두를 건져 주었다. 자기 키도 잠기는 깊이에서 한 아이를 내던지듯 물가로 밀어낸 다음, 그대로 다시 뛰어 들어 남은 둘도

정 영 기 (10회) 동문

- 경남 의령 출생
- 마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대한중외제약 학술부
한독약품 무역부
건일제약 개발부
(주)구주제약 부사장
(주)신도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양팔에 하나씩 나눠 채고 자맥질을 해가며 물가로 나와서는, 입술이 새파래진 우리들의 등을 퐁퐁 두드려 주던 그의 강한 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더위에 지쳐 모두 곤한 낮잠에 빠지고 가게 주인도 줄기 일쑤인 여름 한낮에, 진씨는 홀로 어디서 무얼 하다가 역사 직전의 우리를 발견했을까?

어쩌다 진씨가 안 보이면 그는 언제나 강가 키 큰 미루나무 옆에 가 있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혼자 서있곤 했다. 먼 하늘 아래 그의 고향집을 그리며, 그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향해 그리움의 날개를 펴고 있었을까. 물에 빠져 버둥대는 비명소리가 그 그리움의 날개를 뒤흔들어 그를 회오리처럼 달려오게 했겠지.

성실하고 건장한 진씨 청년은 인기가 좋아서 여러 차례 결혼 권유와 청혼을 받았다. 그러나 매번 거절하였다. 이북에 약혼녀가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주 목이 메이곤 하여, 동네 아낙네들이 놀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잊을 수 없이 애뜻한 사랑이면, 당초 북으로 갈 일이지 왜 남한에 남았느냐는 핀잔 같은 질문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씩 웃기만 하였다. 아낙들의 가벼운 물음에 그가 해야 할 대답의 사연은 너무나 길었을 것이고, 약혼녀를 두고 하는 장난 같은 질문에 가벼이 대답하기도 싫었을 것이다.

전쟁 중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그가 택한 길, 남한 내잔류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느 길이 올바른 인간의 길인가를 두고 처절하게 생각을 거듭했을 것이다. 포로수용소 내에서도 친공과 반공으로 갈라져 죽음의 투쟁을 했다고 한다. 살아남아 북으로 가기 위해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씨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귀향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비애(悲愛)는 있다. 사랑 그 자체를 향한 자살이다. 하지만 이념(理念) 문제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사랑을 위한 죽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전향은 이미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 설사 재전향을 한다하더라도 그 세월에 받아들여질 것이며, 위장이나 재전향으로 목숨을 부지한다면, 그 자체가 질곡(桎梏)의 세월이었을 텐데, 그러한 환경에서 열정 가득한 이십대 청년의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랑의 삶을 과연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반세기가 넘도록 오늘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

을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었던가. 진행 중인 휴전협상은 머잖아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누구보다 민감하게 그 협상을 지켜보았을 반공포로들의 판단도 휴전에 뒤이어 남북의 길이 열릴 것을 믿었을 것이고, 가족도 약혼녀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무상한 세월에 청년 진씨는 중년을 넘기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노년이 되어서도 귀향의 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전부터는 부모형제에게 못 다한 도리로 죽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어쩌랴, 진씨 아저씨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역센 이북 말씨가 우리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말씨도 변했었다. 이북에는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을 혼약한 그 분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 분은 지금 살아 계실까. 진씨 총각을 지금도 기다리며, 기다림을 이어 온 그리움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쌓여 있을까. 하나로 이어진 두 기다림의 중간은 어디쯤일까. 비무장지대 어디쯤일까.

늘에는 원시(原始)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포늪에서 아득한 세월을 읽는다.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저 비무장지대에는 원시가 복원되어 또 하나의 우포늪을 만들어 놓았다. 이 토록 긴 세월에도 그 기다림은 양쪽으로 갈라진 채 메아리도 없는 그리움만 띄우다가, 한 쪽의 기다림은 진씨 아저씨의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다른 한 쪽에선 그 기다림이 허망한 것인 줄을 알기나 할까.

우리 모두의 기대와 판단은 다 빗나가고 말았다. 남북의 길은 아직도 막혀 있고, 진씨의 꿈은 헛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천리 밖 외진 타향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다 가셨다.

길을 같이 한 동지들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자신 죽음을 각오하고 같은 길을 지켜낸 그의 삶은 참다운 인간의 길을 향한 신념과 용기 있는 자의 길이었다. 여러 번의 청혼을 물리치면서 오로지 북의 약혼녀를 향한 외길의 사랑으로 고독을 감내한 그는 순애(純愛)의 표본이요 의지의 남자였다.

휴가를 앞당겨 상장(喪章)을 달고 어서 그를 뵈러 가야겠다. 고인이 된 그가 외롭지 않은 것은, 그의 영혼이 이제는 남북을 거침없이 오갈 수도 있어서이지만,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질 상황에서 그가 몸을 날려 구출해 준 세 아이가 그의 영전에 영원한 사모(思慕)의 향불을 밝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의(義)로움과 사랑은 진정한 인간애의 실천이었다.



1회 졸업생 모교방문의 날 행사

50년만의 귀교... 반갑다 친구야, 근데 이름이 뭐지?



“반갑다 친구야!
근데 네 이름을 잊어버렸다.”,
“오래간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잘 지냈나?”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30여명이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젊은이들이나 쓸법한 육두문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중앙약대(학장 손의동)가 졸업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홈커밍데이 참석한 30여명의 1회 졸업생들은 1957년으로 돌아가 다시 학생이 된 듯 서로 장난도 치고 그 시절 별명을 부르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실험실을 방문한 팔순을 바라보는 졸업생 들은 첨단 기기와 새로운 용어들에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50년만에 학교를 찾은 대선배를 위해 실험을 하던 대학원생이 현재 하고 있는 실험을 설명하자 졸업생들은 “수고했어”라고 후배를 격려했다. 강의실을 돌아본 졸업생들은 여학생수가 많은 것이 의외였는지 언제부터 여학생이 많았는지, 남녀 비율은 어떤지 교수들에게 꼼꼼히 물어보기도 했다.

1회 동문회 홍홍만 회장(76세)은 “감회가 새롭다. 우리가 배울 때 보다 모든 환경이 좋아졌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자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잘 하나까 뭐”라고 후배들에 대한 믿음을 짧게 표현했다. 중앙약대 강형규 학생회장은 “대 선배님들을 직접 뵈고 나니까 앞으로 약대의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의동 학장은 “1회 졸업 선배님들이 모교의 발전된 모습과 후배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홈커밍데이를 기획했다”며 “약학관 설립 등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약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회 졸업생들은 약대건물 앞 화단에 ‘웅비’라고 쓰인 기념비를 세웠다. 손동현 전 중앙약대 교수는 “웅비란 ‘기운차게 날아오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후배들이 앞으로 기운차게 날아올라 모교를 빛내길 기원하면서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卒業 40周年 行事를 마치며...

大學卒業 을 하고 40周年을 맞이 하는 뜻
은 나름대로 살아온 年輪과 經
驗이나 그리고 나이를 生覺해 보아도 한번쯤은 大學의 4年
學友와 그 동안 같은 分野에서 知識을 活用하여 企業 또는
社會 發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일들이나 各자 개인적으
로는 타인으로부터 모범적인 功績을 이뤄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놓은 것들을 반추해보는 公同의 時間을 갖는 것은 큰
의미와 뜻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大
學4年間 사랑과 愛情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恩師님을 모
시고, 조출하지만 報恩의 자리를 갖는 것도 弟子들의 道理
라고 思料됩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大學이나 卒業40周年의
行事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10回 卒業 同期들은 1962年度
에 國內最初로 國家試驗을 거쳐서(5·16혁명직후) 定員90
명이 入學을 하여 卒業 後에는 藥學의 學問과 理論이 必要
한 모든 分野에서 훌륭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行事
는 2006年 10月 29日(日요일) 午後 6時부터 서울 프라자 호
텔(시청앞)에서 갖기로 통보가 된 터라 10餘分前부터 同期
들이 모였으며 모시기로한 敎授님께서는 한분, 두분 오셔서
7時 正刻에 金昌秀 總務의 司會로 卒業40周年 記念式順에
따라 進行되었습니다. 參席하신 敎授님으로는 한덕룡 명예
敎수님, 김일혁 명예敎수님, 김종감 명예敎수님, 손동헌 명
예敎수님, 허인회 敎수님, 이민원 학장님과 권혁구 총동문
회 회장님, 11회 황공용 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0回 同
期로는 國內居住로 연락이 되는 同期는 59名으로 行事에

參席한 校友는 31名으로 많은 數의 人員이 參席하였습니다.

同期會長의 記念辭에 이어 한덕룡 敎수님의 祝辭가 있었
습니다. 韓 敎授님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俗談의 類例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世上을 넓게 보고 살아가라”는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祝辭는 권
혁구 총동문회장님과 이민원 학장님으로 계속 이어졌습니
다. 특히, 李 學長님은 藥學大學의 發展과 약학관 건물신축
계획에 대해 희망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 우리 10回
의 조그만 精誠이 담긴 基金(총 5백만원) 傳達이 있었으며
參席한 同期들 各者는 3分 스피치로 卒業式40年間 걸어진
자취에 대한 自己紹介를 하였고, 곧 이어 저녁만찬과 여흥
의 時間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同期들의 이야기
꽃이 만발하였고, 알코올(?)의 效果인 듯 敎授님과의 對話
또한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구인지가 윤수일의
“아파트”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自進하여 노래
가락들이 연속하여 불러짐으로 晚餐場은 獨唱에서 合唱으
로 번져가고 말았습니다.

敎授님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
다. 특히, 김일혁 敎수님과 한덕룡 敎수님은 여러 장르의 노
래를 소화하시는 대단한 노래실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幸運
卷 추첨과 사진촬영과 大學生活의 追憶이 녹아있는 校歌 提
唱을 끝으로 밤 10時가 넘어 아쉬움을 남기며 40周年 行事
를 마쳤습니다.

ㅣ글ㅣ 박 호 일(동기회장)



14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환갑맞이 가을여행

엄태항 동기가 군수로 있는

경북 봉화군 청량산 탐방기...

올해는 우리 동기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다.

환갑기념과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고심하던 중 봉화군수로 있는 엄태항 동기가 생각났다. 행사준비 내용을 엄 군수에게 의논하니 흔쾌히 봉화탐방을 제시했고 초청해주었다.

11월 4일 아침 7시에 종합운동장역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있는데 하필 2007 중앙서울마라톤대회가 열리는게 아닌가 만명이 넘는 선수들 틈으로 하나둘 우리 동기생들에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유정사 동문회장, 정찬현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해 더 뜻깊은 가을여행이었다.

경인지역 동기생 30명이 모인가운데 최인환 동기생이 잠실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가 왔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다. 10분뒤 최인환 동기모습을 보니 더 반가웠다.

봉화행 관광버스가 출발하자 조길도 회장이 오늘의 일정에 관하여 안내문과 인사말을 한뒤 오늘 행사를 “환갑맞이 가을여행”으로 명명하자 많은 박수를 받았고 여자동기생들은 “자주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니자는 의견”이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는 차에서는 김영남 동기가 준비

해운 김밥과 집행부가 준비한 음료수, 과일 등 간식을 나누워 주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생들은 담소와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창밖에 멋진 가을풍경은 감상도 못했다. 12시경 봉화군청에서 현재위치를 확인하며 대구, 충청, 울산, 강원도에서 동기생들이 벌써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모두들 마음이 설레었다. 봉화군청에 도착해서는 엄태항 동기생의 안내를 받으며 봉화군 명소 및 발전상황등을 듣고 회의실로 이동하여 1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정사 회장으로부터 동문회 소식 및 모교소식을 듣고 조길도 동기회장이 총무보고 및 경과보고 후 차기회장에 현수홍 동기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총무에는 김종렬 동기가 맡게되었다.

현수홍 신임회장은 “동기회 및 모교발전에 온 정성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말하고” 동기생들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엄태항 동기가 준비한 점심식사(송이버섯과 불고기 정식)를 마치고 청량산등반을 2시간정도 하며 맑은 공기와 청량사 가을단풍을 보며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보냈

다. 봉화 청량산의 산사는 신라문무왕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에는 국보 47호인 청량산유리보존(靑凉寺琉璃寶殿)이 있다. 유리보존은 공민왕의 친필로 쓴 현판으로 유명하다.

기암정벽길을 오르며 청량산 육육봉(12개 바위뒤 봉우리)경치와 저멀리 보이는 손바닥바위는 온세상이 전부 내손에 있다는 부처님 손을 연상하게 하고 봉화청량산계곡이 낙동강의 시발점이라고 한다. 박물관 및 안동양반마을을 지나 봉화군에서 시범경영하고 있는 경북봉화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유정사 회장님을 비롯 전동문이 사과를 직접 따보는 현장체험도 해보았다.

자기가 수확한 사과는 본인이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맛있는 사과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동기생들에게 봉화 사과 한박스씩 선물도 해주었다.

어느덧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있어 아쉽지만 봉화관광을 마무리해야했다.

엄태항 동기는 점심에 이어 저녁(송이버섯 손칼국수)까지



준비해주어 즐겁게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봉화를 관광하다보니 자연풍경도 멋지지만 봉화특산물도 많아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도 봉화 관광도 하고 봉화특산물도 구입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쉬운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오르면서 모든일정을 후원해주신 엄태항 동기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김명웅 동기, 박성호 동기, 정도연 동기에세도 덕분에 더 즐거운 여행이 되게해주어 감사드린다.

| 글 | 윤 대 봉 (14회 동기회 부회장)



공 / 지 / 사 / 항

동문회 수익사업 협조의 건

동문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문회를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후원금이나 다른 후원금으로는 동문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껴 동문회 수익사업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피제약에서 나오는

“닥터허브 한방파스”를 특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문회기금도 적립하면서 약국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조 사 : 지피제약(주) (구. 천일제약)
- 판매제품 : 닥터허브 한방파스
- 판매조건 : 1약국당 300매 이상
 - 구입가 : 1,100원 × 300매 = 330,000원
 - 판매가 : 2,500원이상 가능
- 문 의 처 : 각동문회 지부 및 본동문회 사무실
02)565-1700





82학번 동기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사 돌아해보니 1982년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물론 대한 약사회에도 크나큰 전환점이된 한해였던 것 같다.



김 광 식 (30회)동문회장

중앙대 약대 역사상 최대의 인원이 입학.졸업 하였으며, 최초로 남녀의 성비가 역전된 해였다. 그후로 남녀공학일지라도 약대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입학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으며 중앙대 약대의 성비 역전사건은 대한약사회에서도 여약사가 급증하여 남약사를 숫적으로 추월하는 전환점이 되는 해였던 것이다.

82학번은 머리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자질도 꽤 우수했던 것 같다. 156명의 입학생중 아마 110여명이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니 말이다. 입학금 면제, 등록금 면제, 장학금 제공... 아마 이때처럼 동기간에 빈부격차가 심했던적은 아마 없었으리라. 50여명의 동기생이 열심히 등록금을 내면, 그돈은 동기생 장학금으로 몽땅 충당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재단은 아마 82학번 약대생을 상대로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을터이고 장학금이 지급되면 당분간은 술 인심이 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로인해 다음해부터는 장학생 문턱이 턱없이 높아졌다니 후배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82년 약대 입학성적 평균이 의대를 앞섰다는 무용담(?)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있다. 4년간의 학창시절은 어느 학번들과 비슷한 과정이었으리라 추정된다. 필자는 2년을 마치고 군입대한 관계로 철 업된 시절의 2년은 그런대로 기억이 있는데, 철들

무렵의 2년은 전혀 아는바 없음을 동기여러분께는 너그러이 양해 바랄뿐이다.

1982년, 그러니까 1학년때의 일이다. 1학년때 그래도 약냄새 비슷하게 나는 과목이 '약품식물학' 아니던가. 그런데 김일혁 교수님의 자제분이 동기생으로 입학 했다는 것이다. 순간 동기생들간에는 궁굼증이 동했고 나름대로 추적을 했지만 전혀 냄새를 풍기는 놈(?)이 없었다. 친구덕에 강남간다고 어떡해서 '약식' 오랄테스트를 좀 설렁설렁 넘어가는 요행수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어쨌거나 필자 주변의 동기들은 대부분 몰랐던 것으로 안다. 나중에 복학해서야 그친구가 김혜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약반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웃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82학번 동기회나 중대 동문회에 대한 소회로는, 필자가 지난해 인천시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성공을 거둬서 82동기회에 나름대로의 영광을 선사하고 중

대동문회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으나 낙선함으로써 동기들과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 지면을 통해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단의 82학번 동기생들은 1986년 2월에 졸업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약국 개설로, 일부는 공직으로, 몇몇은 제약업체로 진출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2년에 입학20주년 행사가 있었으며, 2006년 12월에 졸업2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루어 냈다. 비로소 졸업성년이 된 지금, 우리 82학번동기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것이다.

졸업후 20년의 세월은 생존경쟁(?)에서 적자로서 생존하기 위해(표현이 너무 심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다면 이제부터의 20년의 세월은 삶의 여유를 찾고 사람을 찾는 세월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점에서 현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점이 되는것이다.

82학번 동기회는 졸업하던 해 결성되어 최병태 동기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장무 동기를 2대회장으로, 김광식 동기를 3대회장으로 추대하여 입학20주년 행사와 졸업2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필자에게 4대회장의 중

책이 주어졌다. 4대회장의 임기는 3대회장과 마찬가지로 졸업30주년 행사까지 꼬박10년 이라는데, 그동안에 뭘하나~ 하는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겠다.

10년간 큰행사가 없는만큼 동기회의 내실을 기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수도권만의 모임이 아닌 전국적인 모임으로 조직화하여 년2회 모임을 정례화 할것이다. 동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많이 모이는 것이 관건인데, 82동기회는 선배기수와는 달리 남녀 성비가 4.5:5.5라 남자동기의 절대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하는 숙명이 상존한다. 또한 낯설은 남녀공학 세대인지라 아직도 서먹함은 분위기를 한사코 가벼이하지 않는다. 그래도

동기회 모임에 여성동지들이 항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이 지면을 통해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많은 여성동지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82동기회는 약대 동기커플인 이장무-김영희, 김광식-윤기숙 두



부부가 열과성을 다해 동기회의 토대를 다져왔기에 여느 기수 못지않은 회세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최병태 초대회장, 2대회장 이장무-김영희 부부, 3대회장 김광식-윤기숙 부부에게 동기전체의 이름으로 노고를 찬양하는 바이다. 4대회장 고석일과 백영주 부회장은 선대 회장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기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면에서 82학번 동기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할수도 있겠으나 필자 생각으로는 졸업30주년 즈음이 우리 동기들의 삶의 궤적을 자랑스럽게 표현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82학번 동기들이여!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열심히 살자.

그리고 죽지 않았으면 졸업30주년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자. 그때까지 우리의 은사님들도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글| 김 광 식 (82학번 동기회 회장)

왕유의 山居秋暝(산거추명) 산 속의 가을 저녁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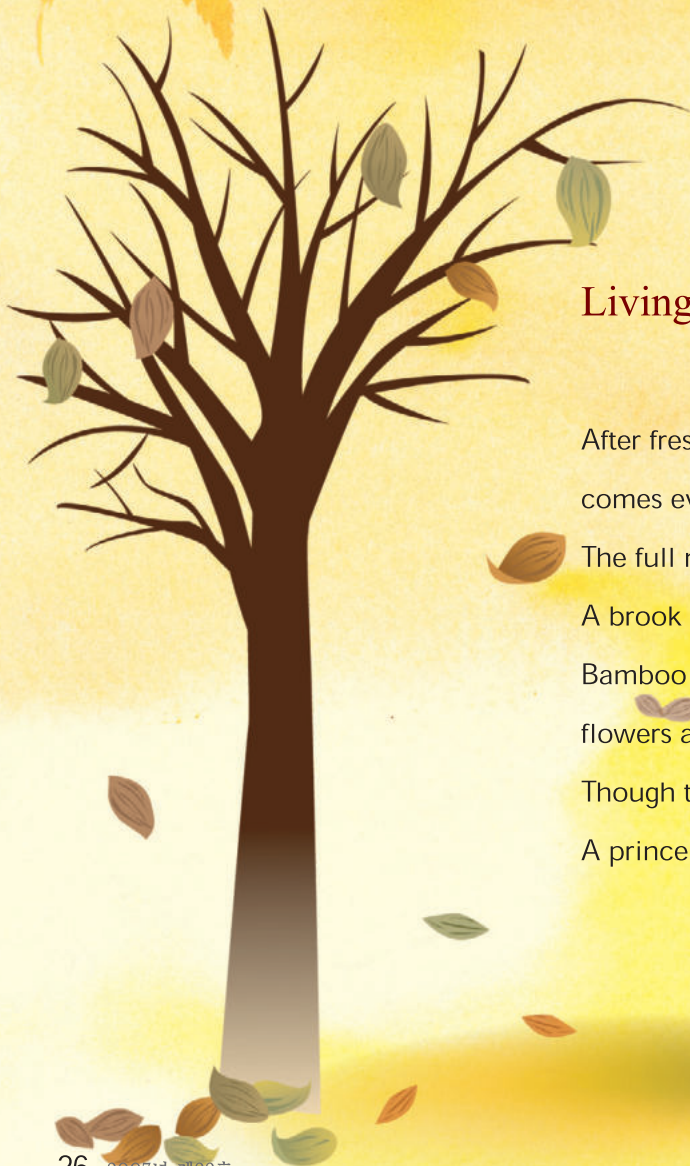
空山新雨後(공산신우후) 고요한 산에 비가 막 내린후에
 天氣晚來秋(천기만래추) 저녁 날씨는 가을이 다가왔네
 明月松間照(명월송간조) 명월이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清泉石上流(청천석상류) 맑은 샘물이 돌위로 흐르네
 竹喧歸浣女(죽훤귀완녀) 대숲을 떠들썩하며 빨래 나온 여인들 돌아가고
 蓮動下漁舟(연동하어주) 연꽃을 흔들거리며 고기잡이배 내려가네
 隨意春芳歇(수의춘방혈) 제멋대로 봄향기 꽃이 다 시들어져도
 王孫自可留(왕손자가류) 왕손은 그런대로 여기 머물러하네



허인회 (4회) 명예교수

Living in the Mountain on an Autumn Night

After fresh rain on the empty mountain
 comes evening and the cold of autumn.
 The full moon burns through the pines.
 A brook transparent over the stones
 Bamboo trees crackle as washer women go home and lotus
 flowers away as a fisherman's boat slips down river.
 Though the fresh smell of grass is gone.
 A prince is happy in these hills.





약학관 착공이 확정되었습니다.
 모교사랑! 이제 생각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약대 사랑의 실천입니다.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사진 (우송해 주시면 학교에서 보존합니다)	성명(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실제생일】	월	일(음/양)	【결혼기념일】	월	일
학적 사항	대학	()대학()학과()년 입학/()졸업					
	대학원	()대학()학과()년 입학/()졸업					
	기타						
연락처	자택	【주소】(우 : -)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직장	【직장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Fax】					

[약정사항]

총기부(약정)금액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기타()
방문납부	납부예정일	년 월 일			
자동이체 (CMS)	일시납부	년 월 일(예정)			
	분할납부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개월			
		매월()원 씩 납부			
	결제	은행명	결제일(택1일)		○ 15일 / ○ 30일
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무통장입금	우리은행 : 495-196401-13-001		예금주 : 중약발전기금		이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200년 월부터 200년 월까지()개월 월[W]원 공제			
기부권유자	성명	연락처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위 사항을 작성하셔서 이메일(fda@cau.ac.kr)이나 팩스(02 816-7338)로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립니다.
- 자동이체(CMS)제도로 기부참여 하시면 은행에 가지지 않고 기부(약정)서로 기부됩니다.

2007년 월 일

기부(약정)자 : (인)

4월 15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최종이사회 6시

- 장 소 : 변산반도
- 안 건 : 1. 경과보고
2.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건
3. 200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4.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건
5. 기타토의 사항



4월 21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산 동문회 정기총회 오후 7시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손의동 학장, 심상수 학부장



7월 22일 15회 동기회모임 오후 7시

- 장 소 : 종로베이징코아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7월 11일 소청론회 모임

- 장 소 : 양지CC
- 김홍진(20회) 회장, 유정사 회장 후원금 지원

7월 14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ROTC 모임

- 김홍진(20회) 회장, 유정사 회장 후원금 지원

7월 31일 총장면담 오전 12시

- 장 소 : 팔레스호텔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박명수 총장, 홍원표 대외협력 본부장, 손의동 학장, 김하영 교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이경옥 여동문화회장, 황공용, 서국진, 김영희 부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8월 9일 김천동문회의

- 참석자 : 손의동 학장 참석

8월 16일 총장면담 오전 10시

- 장 소 : 중앙대학교 총장실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정찬헌 사무총장, 심재호 동문



8월 31일 성북지부 모임 8시

- 장 소 : 개성면옥 [양인승(14회) 지부회장]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정찬헌 사무총장



9월 12일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오후 5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재윤, 임완호, 권혁구 고문, 이경옥 여동문화장, 정찬헌 사무총장



9월 13일 일양약품 정혁식 명예회장 명예약학박사 학위 수여식(정도연(14회) 일양약품 회장 부친)

- 장 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의실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고문, 이경옥 여동문화장, 정찬헌 사무총장, 김영희 여동문화 총무



9월 18일 2007년도 2학기 장학금수여식

- 장 소 : 모교 교수 세미나실



10월 3일 11회 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식

- 장 소 : 강원도 하이원호텔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 동문회 발전기금 3백만원



11월 4일 14회 동기회모임

- 장 소 : 경북봉화
- 신입회장 현수홍, 총무 : 김종렬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27억 5천 7백 7십만원 (2007년 10월 4일 현재)

교 수 총 17,000 만원

- 〈교내〉 손의동(700+5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창중(700), 염정록(7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김종갑(500)
- 〈타교〉 김진학(1000), 제현동(500), 김동석(300), 오유진(300), 주왕기(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수(10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27,95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8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목(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중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 기부 총 6,8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7회 동기회(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기업체후원(700)
- 1회 동문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약우회(500)
- 약대기금(3200)
- 약품물리화학동문회(300)
- 중앙대11회 40주년 기념(300)

학부모 및 기타 총 500,500 만원

- 한충강 '02 한인번 학부모, 300
- 정형식(500,000)
- 오호정(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개인·부부동문 총 1,669,700,000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홍순각(5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 〈3회〉 김용욱(35000), 한만우(1000), 김석자(3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 〈4회〉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 〈5회〉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박명자(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 〈6회〉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중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 〈7회〉 이기황(1150), 유영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현(5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자(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차승현(300), 한철희(300), 정연홍(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종(6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 〈8회〉 이백천(1500), 임상목(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욱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 〈10회〉 방순환(12000), 박호일(800), 유정사(500+500), 서정목(300), 이대윤(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 〈11회〉 정덕호(500), 김창중(5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남기탁 부부, 500), 김승엽(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 〈12회〉 최덕구(1000), 박영찬(1000), 김용환(1000), 강옥희(500), 김 구(5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우준하(500), 이성우(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조성(1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민명임(100)
- 〈13회〉 안병식(10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김중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종목(300), 김신미(10)
- 〈14회〉 김명웅(1000), 정도연(10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 〈15회〉 조찬휘(500+200), 김용의(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 〈16회〉 강명채(5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장건(300), 최광식(전순희 부부, 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우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종형(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19회> 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중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

<20회>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박기배(300+300), 방금숙(선우영환 부부, 500), 이상일(500), 김현태(500), 정찬현(400+100), 김영섭(330), 강해옥(300), 김종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21회> 이세진(500), 이상준(500), 최병철(500), 홍종오(500), 김정기(300), 김성만(300), 김대일(300), 강성무(300), 유승률(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어경남(300), 이규섭(3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장철숙(100), 백운경(50)

<22회> 손의동(700+500), 장용운(300+5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장상대(500), 김홍진(500), 고석순(500), 이준상(500), 오환영(400), 최광훈(300), 강희윤(300), 김철수(300), 박동우(300), 이영옥(300), 유대식(300), 이정석(300), 심재호(300), 전일오(300), 이상돈(100)

<23회> 박종화(1,050), 권석형(500), 이도익(500), 공인호(3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양재엽(300), 정원국(3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박희용(100), 강호영(100), 이정대(100)

<24회> 최영욱(1000), 윤규형(500), 김관식(50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조중래(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임무호(500), 위성건(500), 함삼균(50+300), 이범도(310), 오동근(3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영주(300), 정상수(300), 김상현(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함한성(300), 이규삼(100)

<25회> 이민원(1,000), 손현우(600), 성낙순, 강응모(500), 이재희, 김은진(500), 조석현, 임흥옥(500),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희섭(300), 이내홍(3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김준규(100+300), 권세형(300)

<26회> 심상수(5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황완균(500), 하재일(500),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진희역(300), 최민규(300), 문형철(3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조용백(300), 김학철(300)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애(500), 방만성, 조순연(500), 김영혜, 최평배(500), 최기선(310), 박순자(3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현기원(300), 홍인숙(300), 이무택(300), 최종식(300), 이선애(100)

<28회> 임채욱(5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박우종(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한용문, 김미자(300), 박용석(100)

<29회>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이 준(310),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서경원(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서봉호(1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신일균(300), 김현학(3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31회>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김하형(500), 김진흥(300), 변동성(300), 박건규(50)

<32회> 채영주(400+100),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서수경(300)

<33회> 이재휘(500), 임희원(300), 박재훈(240)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한일권(300)

<35회> 황광우(500), 광정근(300), 권준한(300)

<36회>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박선영(200), 방극상(50)

<37회> 정병욱(300), 방준석(300), 오상희(100), 김학림(100)

<38회> 박용석(300), 조재형(300), 박양혜(100)

<39회> 박종호(300), 양성준(100)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구영준(300)

<43회> 신명숙(300), 강규태(100), 김중호(100)

<44회> 문상희(100), 김수길(300)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8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옥규(300), 김홍자(300), 정송수(300), 이정희(300), 정진도(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3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 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의(300), 어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윤(300), 박용석(300), 조종목(300)

<서울강서, 양천구지부 12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효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서울관안구지부 8명>

이기안, 노신희(500), 문재빈, 김애련(500), 김중열(500), 박석동(500), 우상규(300), 안희영(300)

<서울마포구지부 2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서울광진, 성동구지부 4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서울구로, 금천구지부 8명>

이해석, 강태일(1000), 정진호, 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옥(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지부 3명〉

방만성, 조순연(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지부 3명〉

김경호(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지부 6명〉

고두흔, 박명재(700), 이종각, 박종애(500), 조기현(300), 김영희(300),

〈서울서대문구지부 5명〉

한석원(500), 장용운(500), 정명진(500), 유인석(300), 문옥자(300)

〈서울서초구지부〉

황공용(500), 추익호(300), 이능세(300), 장영자(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삼(100), 이선애(100), 이준장(100)

〈서울성북구지부 2명〉 조찬휘(300+2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지부 7명〉

이규진(500), 김영부(500), 위성건(500), 김영일(300), 김미경(300), 정태형(300), 진희역(300)

〈서울영등포구지부 7명〉

권혁구(1000), 유정새(500+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100), 박운경(50)

〈서울용산구지부 5명〉

하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지부 10명〉

임상목(10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 곽정근(300), 우경아(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지부 13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 전순희(500), 전상훈 (300), 주완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박우종(300), 이병천(300), 최명용(300), 이해룡(300)

〈서울중구지부 2명〉 박영찬(1000), 조규동(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지부 16명〉

유영후(1000), 선우영환, 방금숙(500), 조석현, 임흥욱(500), 김대희(400), 장용운(300), 윤춘수(300), 장재안(300), 전명선, 김민숙(300), 김수종(300), 김안식(3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경기고양시지부 15명〉

이재희, 김은진(500), 이상준(500), 박기배(300+300), 함삼균(50+300), 신성희(500), 김춘규(100+30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 김미재(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상(50)

〈경기광명시지부 15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이(500), 최기선(310), 이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자(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박재훈(240), 김중호(100)

〈경기부천시지부 6명〉

이창훈, 이숙희(500), 김유곤(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경기성남시지부 16명〉

손현우(600), 김 구(5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항만(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영준(300)

〈경기수원시지부 22명〉

임경원, 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 성낙순(500), 채영주(400+100), 김영혜, 최평배(500), 김청길(300), 이내홍(300), 김영후(300), 김영자(300), 홍흥만(300), 김정자(300), 권세령(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홍(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시흥시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운(300), 장우성(300)

〈경기안산시지부 16명〉

김승재, 김희식(500), 최재윤, 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자(300), 이창욱(300), 박복자(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홍철(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경기 안양시지부 21명〉

정찬현(400+1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 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홍(300), 조용백(300), 민명임(100), 이상돈(100), 이철규(50)

〈경기파주시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지부 8명〉

박수길, 이정아(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엽(300), 라종우(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미주지부 16명〉

이기환(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종(60), 조영만, 이정자(50), LA3회 동기회(5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기 구리시 2명〉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희윤(300)

〈경기 김포시 1명〉 김종성(400)

〈경기 동두천시 1명〉 최광훈(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2명〉 김광식, 윤기숙(500)

〈경기 하남시 1명〉 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3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경기 포천군 1명〉 차승현(300)

〈경북김천시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 지부 안동지부 1명〉 임무호(500)

〈경북칠곡군 1명〉 유환성(3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경남밀양 1명〉 정용국(300)

〈경남 창원시 1명〉 김광선(3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 〈충남 홍성시 1명〉 조덕희(300)
 〈충남천안시지부 2명〉 김선기(300), 최옥출(100)
 〈충북제천시지부 2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대구 광역시 6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정영수(300) 최종숙(300)
 〈부산시지부 23명〉
 이백천(1000), 이백천(500), 홍금자, 남기탁(500), 조중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혜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100), 권기동(100)
 〈학계 38명〉
 최영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이민원(1000), 김창종(700), 엄종록(700), 손의동(700+5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이광표(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고성관(300), 권광일(300), 석대은(300), 주왕기, 김희자(300), 오유진(300), 임세진(300), 엄윤기(300), 한성순(100), 김진학(100), 김동석(300), 제현동(500), 정지훈(2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제주지부 1명〉 오황영(400)
 〈강원지부 3명〉
 김정웅(300), 이인자(300), 김학철(300)
 〈병원 5명〉
 이대윤(300), 김승엽(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2명〉
 정형식(50000), 김용욱(35000), 조의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웅(1000), 정도연(1000), 박호일(800), 윤규형(500), 강승안(500), 이양현(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성우(500), 이상일(500), 천흥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하(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영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서수경(300), 양성준(100), 이준상(500), 장 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박양혜(100), 오호정(200)
 〈기타 27명〉
 학생회(535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김연희(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허근희(300), 권영훈(300), 최민규(300), 91학번친목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충강(한인빈 학부모)(300), 유윤자(300), 박정배(300), 곽순자(300), 약대 1회동기회회(300), 약품물리화학반 동문회(300), 64예중회(100), 송병준(100), 황재수(100), 약대 1회동기회 40주년 기념(300), 중앙대 50계단회(정영복)(100), 김신미(10)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2007년도 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윤지은	3.91
	700,000	약학2	이윤정	3.88
	700,000	약학3	임효진	3.73
	700,000	약학3	서소현	3.54
	700,000	제약3	정유경	4.10
	700,000	제약3	류미란	4.02
	700,000	약학4	이보람	3.88
	700,000	약학4	장훈준	3.59
	700,000	제약4	조규석	3.88
	700,000	제약4	김문선	3.75
부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부1	박상희	3.76
안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제약2	김정현	3.85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제약2	류서진	3.85
	500,000	약학부1	강혜진	3.71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3	최신형	1.50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문기영	2.65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2	장지민	2.75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김진우	2.73
약품물리화학반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4	정주용	2.87
한미약품(주) 4,17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8,470,000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2007년도 5월 19일 ~ 11월 30일)

제1차 회장단특별기금 (각 500,000원)

- 유정사, 황공용, 노덕재, 이내흥, 이상수



제2차 회장단특별기금 (각 500,000원)

- 서국진, 문재빈, 현수홍, 정찬헌, 조석현



제3차 회장단특별기금 (각 500,000원)

- 조규동, 김종렬, 최광식, 장재인, 신상직



이사회비 (120,000원)

- 1회 : 손동헌, 김기홍, 홍흥만, 조덕렬, 김옥동
- 2회 : 지선훈, 정덕화, 이문규, 최관용
- 3회 : 최종목, 오세형, 박종순, 이기상, 이병균, 노인배
- 4회 : 김현용, 천흥기
- 5회 : 김채윤, 이송학, 박영규
- 6회 : 안인혁, 최길영, 안병한, 임완호, 류관열, 박정배, 김경희, 유상렬, 진교성, 전희태
- 7회 : 이기안, 정재일, 유영후, 김정부, 서명규, 김영일, 이양헌
- 8회 : 조의환, 허근희, 박번일, 박도규
- 9회 : 권혁구, 문영동, 이근배, 김홍래, 박장우, 강군모, 박성학, 김영빈, 윤광로, 최영근
- 10회 : 정영기, 박호일, 전수원, 장영조, 주정덕, 박광일, 이원일, 이홍수, 이양원, 심수일, 전광석
- 11회 : 최옥출, 김창종, 김승업, 박찬희, 남복석, 김미자, 박희경
- 12회 : 우준하, 심재웅, 강옥희, 조택상, 최병호, 박영찬
- 13회 : 이상길, 이종각, 안병식
- 14회 : 현수홍, 박기진, 김명웅, 양인승, 홍성철, 유효성,
- 15회 : 박원봉, 김형수, 이명숙, 권영선
- 16회 : 최창원, 권영복
- 17회 : 김인형, 김성지
- 18회 : 김애경, 강응모, 여운숙
- 19회 : 신성익
- 20회 : 권오규, 이호선, 최석중
- 21회 : 김중호, 전명선
- 22회 : 손의동, 오황영,
- 23회 : 권석형
- 24회 : 윤규형, 김정무, 황규진, 김정일, 오세홍
- 25회 : 김희섭
- 26회 : 김정수B
- 27회 : 김정호, 오흥설
- 28회 : 김희식
- 29회 : 서경원
- 30회 : 최병원

일반회비 (20,000원)

18회 : 윤순석

회원경조 소식

결혼

- 6월 2일 박찬희(11회) 이사 자녀결혼
- 9월 1일 이충식(13회) 이사 자녀결혼
- 9월 8일 이기안(7회) 이사 자녀결혼
- 9월 16일 이상용(15회) 이사 자녀결혼
- 10월 6일 박번일(8회) 이사 자녀결혼
- 10월 7일 이양원(10회) 이사 자녀결혼
- 10월 9일 김기명(18회) 부회장 자녀결혼
- 10월 21일 이원일(10회) 이사 자녀결혼
- 10월 21일 조기현(16회) 이사 자녀결혼

부음

- 5월 26일 부성심(26회) 동문 모친상
- 6월 17일 박원봉(15회) 이사 남편상
- 7월 4일 정정희(6회) 동문 남편상
- 7월 8일 박종화(23회) 부회장 모친상
- 7월 15일 김종렬(14회) 부회장 빙부상
- 7월 16일 이범도(24회) 부회장 빙부상
- 7월 16일 홍찬의(16회) 동문 별세
- 7월 26일 이현희(22회) 동문 빙모상
- 8월 27일 김광욱(26회) 동문 별세
- 9월 4일 손동헌(1회) 명예교수 부친상
- 9월 4일 유희식(13회) 동문 별세
- 9월 9일 이성희(8회) 동문 별세
- 9월 15일 서경원(29회) 이사 부친상
- 9월 28일 박영찬(12회) 이사 부친상
- 10월 9일 조형진(28회) 동문 빙모상
- 10월 18일 김은주(30회) 동문 시부상
- 10월 29일 신상직(17회) 부회장 빙모상
- 11월 7일 이강욱(26회) 동문 모친상



2007년이 다 저물어 간다. 봄에 동문회장 임기 2년을 시작한 유정사회장 체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동문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동문회보 발간에 심한 산고가 있었다. 그래서 여름을 넘기고 또 가을호로 제호가 바졌지만 정작 출산은 12월에 들어와서다. 그동안 편집을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들과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들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우리 동문회보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의 자량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참으로 절묘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일이 불과 23일 남겨둔, 정치권은 오로지 상대방후보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는 도무지 도움이 안되는 소모적 논쟁으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는데...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 약사대회가 열렸다.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지도자들이 공식 대선후보등록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하였다.

그날 이분들의 말씀 되로라면... 우리 약사들의 미래는 크게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대한 포부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김 기 명 (18회) 편집위원

인생에 있어서 사소함이란 무엇일까? 또 큰일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그 사소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에 따라 담론이 바뀌어 가지만 그 시대 그들의 고민을 다시 한번 절감해 볼 수 있는 희생이란 매개체를 활용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고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낙망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 최소한도 이런 길은 있더라고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다.

거친 세상의 파도와 열심히 맞서 싸우다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과 행운이 나에게로 찾아와 주더라는 조금도 과장 되지 않은 진솔한 체험들로 이들에게 최소한 작은 등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

김 정 수 (26회)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종렬(14회), 김기명(18회), 김경오(19회), 정찬현(20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 최면용(27회),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옥고록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일반의약품 리스트

약효군	제품	제품명	성분 / 함량	효능 / 효과
비타민 함유 영양제		로얄민연질캡슐	Royal jelly 20mg, Tocopherol acetate 45IU, 비타민 C 100mg, 비타민 B ₁ 5mg, 비타민 B ₂ 2mg, 비타민 B ₆ 5mg, 비타민 B ₁₂ 12μg, Nicotinamide 40mg	갱년기장애 : 수족냉증, 수족마비 말초혈행장애 : 어깨결림, 두통,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
		텐씨 정 (오렌지, 파인애플)	비타민 C 500mg, 비타민 B ₂ 2mg, 비타민 B ₆ 10mg, 비타민 E 10mg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어린이용텐씨 플러스츄어블정 (딸기, 오렌지, 바나나, 포도맛)	콜레칼시페롤가루 0.8mg, 아스코르빈산 111.1mg, 질산치아민 1.0mg, 니토티산아미드 3.0mg, 염산파리독신 5.0mg, 침강탄산칼슘 17.5mg 외 2성분	다음 경우의 비타민 B ₁ , B ₆ , B ₁₂ , C, D, E의 보충·발육기
		엘씨-레디정	L-시스테인 12.5mg, β-카로틴30%, 현탁액 3.34mg, 50% 초산토코페롤 5.0mg, 질산치아민 2.0mg, 푸마르산철 13.69mg, 당귀건조엑스 1.3mg, 작약건조엑스 1.0mg 외 9개 성분	비타민 A, C, B ₁ , B ₂ , B ₆ , E의 보충,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
빈혈 치료제		헤모테인-에프시럽	100mL 중 철단백추출물 수화글리세린액 20g (페리친성 철로서 400mg)	철결핍성 빈혈
잇몸질환 치료제		이리돌연질캡슐	Zea mays L. extract 35mg	치주질환
기능 무력 개선제		포맨액	L-Arginine-L-aspartate 21.17g/100mL	정신·신체 기능무력 (피로·집중 장애)
성인병, 혈액순환 개선제		엠비셀연질캡슐	비타민 E 200mg, 비타민 C 250mg, 베타카로틴 3mg, 산화아연 9.337mg, 산화제이동 1.252mg, 셀레늄 0.1% 가루 15mg, 황산망간 4.613mg	비타민 A, C, E, 및 미네랄 보충
피로 회복제, 긴장용제		복합엘씨500 연질캡슐	L-Cystine 250mg Choline bitartrate 250mg	간기능 저하로 인한 제증상의 치료 보조, 알콜성 지방간
		알코덱스액	L-arginine 7.31g Citric acid 2.94g Betaine HCl 5g Betaine 5g/100mL	간질환의 보조치료
		헤파툼연질캡슐	간장농축물 64.8mg 간장분획물 264.8mg 건조간장가루 194.4mg DL-Methionine 10mg, 외 비타민 10종 등	알콜중독증, 간독성 약물·간중독에 기인한 간기능 부전 및 그로 인한 남녀불임증의 치료
호흡기 용제		신콜프-에프정	Acetaminophen 200mg Dextromethorphan HBr 7.5mg Guaifenesin 40mg Lysozyme HCl 10mg(역가)	기침감기약 : 감기의 제증상의 완화

반세기를 이어온 고객의 사랑

웨스탈은 그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브랜드] 서적에 소개된 웨스탈”

KR.PAN.05.10.01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사랑플러스 캠페인’

한독약품의 대표 브랜드 ‘웨스탈 플러스’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사랑플러스 캠페인’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마다 불우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으로 늘 소비자 곁에 가까이 있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한 마케팅 관련 서적은 한국 최고의 브랜드 중의 하나로 웨스탈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기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소화제 하면 웨스탈을 먼저 꼽아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속이 더부룩할 땐, 언제나 믿음을 주는 웨스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속 편한 종합 소화제 - 웨스탈 플러스

- 시메치론 - 가스를 신속하게 제거 ● 판크레아틴 -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효과 빠른 소화
 - 이담제 UDCA - 이담작용 및 지방소화촉진작용 ● 셀룰라제 AP3 - 가스생성을 차단, 더부룩 답답함 제거
- 문의사항 : 02)527-5581 월~금(09:30~17:00)

속 편한 소화제 -
웨스탈[®]
 플러스^정

“한국 제약기술의 자부심”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최첨단 연구센터 개관

경기도 기흥에 2004년 개관한 최첨단 연구센터에서는 신약,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고난이도 퍼스트제네릭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한미약품이 미래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국적사에 기술수출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1989년 스위스 로슈사에 「세프트리악손」 제법기술을 미화 6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였고,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마이크로에멀전」 제제기술을 미화 6,300만달러에 기술수출 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획을 긋는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였다.

개량기술,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고난이도의 합성기술, 다양한 제제화 및 DDS 개발 등 최첨단의 개량기술 개발과 신규 염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정」, 「슬리머 캡셀」 등의 연이은 개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 업계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항암제 신약개발 집중화 전략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의 임상시험 진입, 다중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전임상 시험 착수, 선택적 신호전달 차단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 착수 등으로 한미약품은 특화된 항암제 분야에 신약개발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성 단백질 기반기술 개발

새로운 재조합 캐리어의 개발을 통한 지속성 단백질 의약품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단백질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써 수주에 한번의 투여만으로 충분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개량기술 및 개량신약 개발에서 얻은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